

도시주부의 환경친화적 행동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ousewives' Pro-Environmental Behavior and it's Determinants in Urban Area

우석대학교 의상·주택학부

교수 곽인숙

중앙대학교 주거학과

교수 이경희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홍성희

Dept. of Clothing and Housing Design, Woosuk University

Professor : Kwak, In-Suk

Dept. of Housing Studies, Chung Ang University

Professor : Rhee, Kyung-Hee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 Hong, Sung-Hee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the level of housewives' pro-environmental behavior, and (2)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elected variables on pro-environmental behavior. 941 sample were selected from housewives living in urban area. For the analysis of data, frequencies, means, one-way ANOVA, DMR test, Chi-squar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level of housewives' pro-environmental behavior was lower than that of pro-environmental attitude. 2. The level of housewives' pro-environmental behavior was mainly affected by their environment-

Corresponding Author: Hong, Sung-Hee, Departmen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1000 Sindang-dong, Daegu 704-701, Korea Tel: 82-53-580-5863 Fax: 82-53-580-5483 E-mail: hsh@kmu.ac.kr

related variables, for example, pro-environmental attitude, and experience of environmental education. Most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family-related variables didn'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evel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주제어(Key Words): 환경친화적 행동(pro-environmental behavior), 환경친화적 태도(pro-environmental attitude), 환경교육경험(experience of environmental education)

I. 문제의 제기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류는 생활 전반에 걸쳐 문명의 혜택과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급속한 소비의 확대는 자원 고갈과 에너지 부족, 생활폐기물의 급증, 환경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환경문제는 개인과 인류의 생존기반과 복지를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높은 인구밀도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수준은 심각한 상태이다(이상협, 2003). 환경오염의 원인으로는 인구의 증가, 과학기술의 발달, 산업화 등을 들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근본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물질주의 가치관이나 편의주의 가치관 등이 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즉,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류는 자원을 더욱 개발하고 대량생산하여 대량으로 소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정에서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원을 사용하고 소비된 자원을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과 환경문제의 많은 부분이 개인과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소비를 절제하고 편의주의적 가치 및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는 자원관리태도나 소비 및 폐기의 순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환경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는 곧 자원의 관리 뿐 아니라 궁극적인 생활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며, 연구성과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결방법과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선행연구(민현선·이기춘, 1999; 김시월, 2003)의 결과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환경의식은 높지만 그 의식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수준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즉,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고 환경태도가 환경친화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개인적으로 편의적 가치성향, 사회적으로 환경친화적 행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조건 및 시설의 제약, 정책적으로 환경친화적 행동을 조장하거나 보상하는 외적 동기요소의 결여 등으로 인해 많은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친화적 태도는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민현선·이기춘, 1999; 김시월, 2003; 이상협, 2003)으로 밝혀졌으나, 행동은 행동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행동을 따르게 하는 사회적 압박, 그리고 행동의 용이성 등에 의해 실행된다(Ajen, 1985; 1992). 즉, 인간의 행동은 태도 뿐 아니라 사회적 기준이나 실행가능성과 같은 강제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 환경친화적 행동의 결정요인으로 외부의 보상이나 자극에 의해 환경행동을 촉진시키는 외적 동기와 소비자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환경친화적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를 갖는 내적 동기가 있다(유두련, 2002). 한편 환경교육은 환경친화적 태도와 실천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서(이상협, 2003), 환경교육이 환경친화적 행동에 미치는 중요성은 많은 선행연구(최남숙, 1994; 심미영, 1999; 이상협, 2003)에서 입증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 행동이 소비자의 내적, 외적 조건과 환경교육을 통한 동기 형성 및 행동수행능력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것으로 개념화하여 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 행동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환경

친화적 행동의 구조를 파악하고 행동의 동기요소의 제약요인을 제시해 줌으로써 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사와 효과적인 교육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의식과 태도를 행동으로 실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인 행동 수행을 통해 생활의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과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환경친화적 행동의 개념과 하위영역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소비자는 구매, 사용, 처분의 일련의 소비자행동 과정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 소비규모를 확대시키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자원 및 에너지의 고갈을 초래시키며, 편의주의적 가치와 성향으로 인해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보다 책임있는 역할과 의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을 의식하는 소비자는 특정제품이나 용역의 구매, 소유, 사용 및 처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식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 태도, 의식 및 행동에 반영시키는 사람으로 정의된다(Henion, 1972). 또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은 자신의 소비행위가 환경문제를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함으로써 환경과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품을 구매·사용·처분하는 행동이다(강희선, 1993; 박운아, 1997; 박영옥, 1998). 엄하정(1993)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관리행동을 가족원의 목표와 환경보존이라는 사회적 가치관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가정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하였는데, 환경문제와 관련된 관리행동이나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비행동 및 자원관리행동에서 환경보존적인 가치와 태도를 내재화시키며 행동으로 실행한다는 점에서 환경친화적 관리행동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에 대해 차정은(2000)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비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환경보존을 위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소비행동으로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비활동으로 보았으며, 이경희(2003)는 환경친화적 행동을 물질적 풍요나 편리성에 강조를 두기 보다는 환경보전과 생태계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공해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을 소비하여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소비활동이라고 하였다.

환경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개인의 환경태도 및 관심이 다양하게 발달될 수 있으므로 환경행동도 넓은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실행될 수 있는데, 환경친화적 행동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으로 강희선(1993)과 박영옥(1998)은 자원의 소비절약과 재활용 행동, 식품의 화학첨가물·합성세제·화학비료와 농약·산업폐기물·환경오염 등을 포함하는 환경보전 행동, 환경에 대한 소비자교육 및 관련행사 참가, 정보탐색행동 등을 포함하는 환경보전에의 참여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Schahn과 Holzer(1990)는 환경과 관련된 행동을 투입·과정·산출·환류 단계의 전 과정을 포함한 영역으로서 에너지 절약, 수자원 절약, 환경 의식적 구매, 환경 의식적 정치 참여, 재활용과 쓰레기 줄이기, 건강보호의 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행동을 자원의 구매, 사용, 처분행동에서 물질적 풍요와 편리성보다는 환경보전과 합리적인 자원사용에 가치를 두어 환경오염 및 쓰레기를 줄이는 상품의 구매, 자원 및 에너지의 절약, 장기적 사용, 폐기물의 감소와 재활용 등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보고, 구체적인 실천영역을 건강보호행동 영역, 물소비행동 영역, 전기소비행동 영역, 경제적 보상

행동 영역, 환경보전행동 영역으로 세분화시켰다.

2.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주부의 환경친화적 행동 수행에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택유형 등 개인적 특성 및 가족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연구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부의 연령은 환경보존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최남숙, 1994), 연령이 적을수록 환경친화적 행동이나 환경관리행동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곽인숙 등, 1998; 박운아, 1997; 노영화 등, 1992) 있는 반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서정희, 1991; 노남숙, 1994)도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재활용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서정희, 1992; 엄하정, 1993; 최남숙, 1994)가 있으며, 환경친화적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박운아·이기춘, 1995; 이연호·박미석, 1997)가 있다.

소득수준은 많은 환경행동 관련 연구에서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곽인숙 등, 1998; 최남숙, 1994), 박운아·이기춘(1995)의 연구 결과에서는 소득이 적을수록 보다 환경의식적인 행동을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의식적인 행동의 특성상 절약동기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주택유형에 따라 이연호 등(1997)의 연구와 심미영(1999)의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재활용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분리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사무실 및 경비실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으나 박운아 등(1995)의 연구에서는 주택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시간제약이 많은 취업주부들이 비취업주부에 비해 환경의식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신 등, 1993; 엄하정, 1993; 박운아·이기춘, 1995).

편의주의 가치는 환경오염감소와 관련된 관리행

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편의주의적 가치에 덜 매몰되어 있는 주부일수록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려는 환경지향적 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하정, 1993).

환경지식은 전체 환경과 환경관련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기본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승신 등, 1993)으로, 박운아·이기춘(1995), 이연호 등(1997)과 이상협(2003)의 연구에서는 환경보존에 관한 지식이 많을수록 환경을 의식하는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노영화, 강성진(1992)은 소비자의 환경보전적 생활의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연령, 학력, 소득과 같은 개인적 특성도 부분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과 환경교육 참가경험이 환경보전적 행동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환경교육과 이를 통한 환경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태도는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조요인으로, Weigel(1978)의 연구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어 태도변수는 환경지향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Roberts(1991)의 연구 결과에서도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보다는 태도 변수들이 사회책임적 소비자행동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승신 등(1993)이 환경보전 지식, 태도, 기능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소비자의 실천적인 영역인 환경보전기능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의식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친화적 태도와 관심으로서(이상협, 2003), 박명희·정주원(1995), 곽인숙 등(1998), 김시월 등(1999)의 연구에서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행동에 환경의식 및 환경태도 등의 태도변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행동 수행을 위한 주변상황으로서 정보공유성이 환경친화적 행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으나 유사한 개념으로서 Vining 와 Ebreo(1990)는 이웃이나 동료의 영향이 환경보전행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엄하정(1993)의 연구에서는 반사회 활용

도가 환경보전행위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연호 등(1997)의 연구에서도 반상회나 부녀회, 지역 봉사회, YWCA, 교회나 성당 봉사회 등 지역사회조직에서 환경 오염이나 재활용행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지역사회 조직활동도가 주부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이웃이나 친지와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정도에 따라 환경친화적 행동 수행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재활용 용이성은 환경친화적 행동 수행을 유도하는 동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분리수거함이 세분화되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부일수록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려는 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분리수거함 세분화가 분리수거행동 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관련된 다른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엄하정(1993)의 연구결과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변지역의 재활용 용이성은 주민들의 환경친화적 행동의 활성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조건으로서,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환경교육 경험이 있는 주부들은 환경보전행동 또는 환경관리행동을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노남숙, 1994; 최남숙, 1994; 박운아·이기춘, 1995; 유두련 외, 1996, 이상협, 2003). 최남숙(1994)과 이상협(2003)의 연구에서는 환경교육경험은 환경친화적 관리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경의식의 형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환경교육의 경험이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하는데 중요한 동기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환경교육경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교육은 학교, 대중매체, 가정, 그리고 민간소비자단체 등(강희선, 1993; 박운아, 1997)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대중매체가 가지는 신속성과 동시성, 대중성,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 등의 특징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인식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연호, 1996). 이승신 등(1993)은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매체의 보도를 접촉한 주

부들일수록 적극적으로 환경보전행위를 수행한다고 하였으며, 박운아·이기춘(1995)의 연구에서는 환경 기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이 보다 환경의식적인 소비자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마스크가 소비자의 환경교육 수단으로서 매우 효과가 크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 이외의 기관인 환경단체나 민간소비자단체를 통한 환경교육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김영순, 1997), 시민단체나 지역사회에서 주관하는 환경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수록 청소년들은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차정은, 2000). 이와 같은 환경교육은 환경친화적 행동 수행에 직접적 효과 및 간접적 효과를 미침으로써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척도의 구성

본 연구는 도시주부의 환경친화적 행동 수행수준을 파악하고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도시주부의 환경친화적 행동은 개인적 특성변수, 가족특성변수, 환경관련변수 및 환경교육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도시주부의 환경친화적 행동은 환경교육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도시주부의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 한가?

도시주부의 환경친화적인 행동은 엄하정(1993), 변순희 등(1995), 심미영(1999), 유두련(2002)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초로 환경친화적 행동수행을 측정하는 26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하위영역으로 식품첨가물과 농약, 화학섬유 등을 구입하지

않는 건강보호 행동, 수자원 절약을 실행하는 물 소비행동,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는 전기 소비행동, 경제적 이득 또는 부담과 관련된 경제적 보상행동,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배출을 자제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을 실행하는 환경보전행동의 5개 영역을 구성하였다. 물 소비행동과 전기 소비행동은 동일한 자원소비행동 영역으로 볼 수도 있으나, 물과 전기의 사용요금체계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물 또는 전기 소비와 절약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주부의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및 가족특성변수들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으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관련변수는 그 특성에 따라 개인적 특성변수, 가족특성 변수, 환경관련 변수 및 환경교육유형변수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특성변수로는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가 포함되었다. 가족특성변수는 가계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남편의 직업 및 가계소득과 주택유형, 주택소유상태, 주택규모 등 주택관련변수들로 구성하였다.

환경관련변수는 환경지식수준, 환경태도, 자원절약에 대한 지식, 편의성, 지역사회에서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도, 환경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용이성 정도, 자원재활용 용이성 정도 등을 포함하였다. 환경관련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환경교육을 받을 경험이 많을수록, 환경활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원절약에 대한 지식이 많고 환경친화적 행동수행을 불편해하지 않는 등의 제약사항이 적을수록, 주택의 주변상황이 환경정보와 환경상품 구입, 재활용 등 환경활동을 용이하게 해줄수록 환경친화적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환경교육유형변수로는 학교의 환경교육 이외에 대중매체 및 시민단체의 환경교육 등 5가지 유형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5대 도시지역, 즉 서울, 경기지역, 대전, 대구,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로 한정하였다. 2002년 10월 1일에서 7일까지 각 지역의 주부 10명씩 총 5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조사를 위해 2002년 10월 10일에서 10월 30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 각 200부와 기타지역에 각 150부씩 총 1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는데, 이 때 조사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였다. 부실응답 등 적합하지 않은 조사대상자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641부이다.

자료의 분석은 PC SAS Program(Ver 6.12)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환경친화적인 행동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들은 일원분산분석과 DMR 검증, Chi-square test를 통해 분석하였고,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으며 VIF 계수가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0세 미만이 26.5%, 41-49세가 52.1%, 50세 이상이 21.4%로 다른 연령에 비해 40대가 약 2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58.3%, 전문대졸 이상이 41.7%로 고졸이하가 더 많았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주부가 63.2%, 취업주부가 36.8%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으로는 전문·기술직/경영·관리직이 36.3%, 사무·판매·서비스직/자유·상공업이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환경친화적 행동(29)	환경친화적 행동을 실행하는 정도 1=거의 하지 않는다 5=거의 항상 그렇게 한다
독립변수	
개인적 특성변수	
주부의 연령	세
주부의 교육수준	고교 졸업 이하 1=해당 0=비해당 전문대 졸업 이상 1=해당 0=비해당
주부의 취업 여부	1=취업 0=비취업
가족 특성변수	
남편의 직업	1=전문·기술직/경영·관리직 2=사무·판매·서비스직/자유·상공자영업 3=단순노무자, 농어업종사자, 무직
가계소득	월평균 가계소득(만원)
주택유형	1=공동주택 2=단독주택
주택소유상태	1=소유 0=기타
주택규모	실제 평수(평)
환경관련 변수	
환경 지식 수준(17)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정도 1=정답 0=오답
환경 태도(29)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1=전혀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
자원절약지식(1)	자원절약방법을 모르고 있는 정도 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
편의성(1)	환경친화적 행동을 번거롭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정도 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
정보공유성(1)	지역사회에서 환경정보 공유 정도 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
환경상품 구입 용이성(1)	환경상품을 구입하기 용이한 정도 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
재활용 용이성(1)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용이성 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
환경교육유형 변수	
환경보호캠페인 참가경험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가한 경험 0=없음 1=있음
환경비디오 시청	환경문제에 관련된 비디오 시청 경험 0=없음 1=있음
환경보호활동 참여	환경보호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0=없음 1=있음
학교환경교육 경험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 0=없음 1=있음
환경기사 관심	환경문제에 관한 뉴스, 신문기사에 관심유무 0=없음 1=있음

()의 숫자는 문항수를 의미함

54.4%, 단순노무자·농어업종사자·무직이 9.2%로 나타나 전문·경영직보다 판매·상공업이 약간 많았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약 329,7만원이었으며,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65.1%로, 단독주택의 비율(34.9%)과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영업용 건물내 주택은 3.5%로 그 수가 너무 적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시키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거주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가 78.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의 평균 규모는 33.69평이었다.

조사대상자 중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90.9%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환경교육의 유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41)

종속변수			
환경친화적 행동(29)			1383(3.12)
독립변수			
개인적 특성변수	주부의 연령(세)		43.61(8.31)
	주부의 교육수준	고졸졸업 이하	374(58.3)
		전문대 졸업 이상	267(41.7)
주부의 취업	비취업	405(63.2)	
	취업	236(36.8)	
가족 특성변수	남편의 직업	전문기술직/경영관리직	233(36.3)
		사무,판매/자유,상공자영업	349(54.4)
		단순노무,농어업종사,무직	59(9.2)
	가계소득(만원)		329.7(254.32)
	주택유형	단독주택	224(33.7)
		공동주택	418(62.9)
영업용 건물내 주택		23(3.5)	
주택소유상태	소유	519(78.0)	
	기타	146(22.0)	
주택규모(평)		33.69(17.78)	
환경관련변수	환경지식수준(17)		11.00(2.24)
	환경태도(29)		19.71(3.42)
	자원절약지식		3.61(1.18)
	편의성		3.86(1.03)
	정보공유성		3.59(1.19)
	환경상품 구입용이성		3.00(1.06)
	재활용용이성		1.88(0.96)
환경교육유형변수	환경보호캠페인참가경험	있음	278(43.4)
		없음	363(56.6)
	환경비디오 시청	있음	338(52.7)
		없음	303(47.3)
	환경보호활동 참여	있음	117(18.3)
		없음	524(81.7)
	학교환경교육 경험	있음	418(65.2)
		없음	223(34.8)
	환경기사 관심	있음	489(76.3)
		없음	152(23.7)

()안의 수치는 변수의 수치를 표시

* : 평균(표준편차) 혹은 빈도(퍼센트)가 기록되었음

형 중 환경보호 캠페인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주부는 43.4%로 절반이 못되었으며, 환경문제와 관

련된 비디오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주부는 52.7%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였다.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

지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부의 비율은 18.3%로 아주 낮은 수준인 반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주부는 65.2%로 매우 많았다. 또 환경문제와 관련된 뉴스와 신문 등을 관심 있게 본다는 주부는 76.3%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매스컴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지식은 최고점인 17점 중 평균 11.0점으로 상당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행동을 수행하는데 제약조건이 될 수 있는 자원절약에 관한 지식은 제약이 전혀 없는 경우인 최고점 5점 중 3.61점으로 비교적 환경관리행동을 수행하는데 방법을 모르고 있는 주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친화적 행동수행 편의성도 3.86점으로 환경친화적 행동수행이 번거롭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비교적 높지 않았다. 환경행동수행을 위한 주변 상황으로서 환경정보의 공유성은 3.50점으로 비교적 이웃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정도가 높았으며, 환경상품 구입 용이성은 3.00점으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용이성은 1.88점으로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가정생활에서 버리는 재활용품을 적시에 수거해 가고 어떻게 재활용되는가를 잘 홍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환경친화적 태도와 행동수준

주부들의 환경태도와 행동수준이 환경친화적 행동영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영역별로 환경친화적 태도점수와 행동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반적으로 환경친화적 태도에 비해 환경친화적 행동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소비자의 환경의식은 높지만, 그 의식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한 김시월(2003)의 견해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환경친화적 태도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부분은 건강보호 영역으로 최대값 5점에 평균 4.11로 가장 높았다. 예를 들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농약을 덜 사용한 과일이나 식품을 구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자제하는 소비태도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전기소비영역의 환경친화적 태도가 4.10점, 물소비 영역의 태도는 3.99점, 경제적 보상 영역의 환경친화적 태도는 3.84점, 환경보전영역의 태도는 3.67점으로 환경보전영역에 가장 관심이 적었다.

반면 환경친화적 행동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가 가장 높은 수행수준을 보인 영역은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행동으로 최대값 4점에 평균 3.19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들이 의식적으로는 가족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행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호 영역의 행동수준은 2.86점, 전기소비영역의 행동 수준은 2.84점, 물소비 영역의 행동 수준은 2.50점, 환경보전영역의 행동은 2.44점으로 물소비나 환경보전과 관련된 환경행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전영역은 태도와 행동 면에 모두 가장 낮은 영역이었는데, 이 영역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은 물이나 전기 소비와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거나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혜택이 주

<표 3> 영역별 환경친화적 태도와 행동 수준

(N=641)

영역	환경친화적 태도				영역	환경친화적 행동			
	평균	표준편차	최저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저값	최대값
건강보호	4.11	0.77	1	5	건강보호	2.86	0.69	1	4
물소비	3.99	0.82	1	5	물소비	2.50	0.85	1	4
전기소비	4.10	0.69	1	5	전기소비	2.84	0.63	1	4
경제적보상	3.84	0.48	1	5	경제적보상	3.19	0.44	1	4
환경보전	3.67	0.66	1	5	환경보전	2.44	0.51	1	4

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배경변인에 따른 주부들의 환경친화적 행동의 차이

주부들의 환경친화적 행동이 개인적 변인과 가족

특성 변인, 환경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다. 주부의 연령은 물소비 행동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젊은 주부보다 물 절약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소비와 경제적 보상 행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표 4> 개인적 특성 및 가족특성변인에 따른 주부들의 환경친화적 행동의 차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N	건강보호	물소비행동	전기소비	경제적보상	환경보전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평균(DMR)	평균(DMR)	평균(DMR)	평균(DMR)	평균(DMR)
주부의 연령	40세 미만	170	8.56	7.09(B)	13.83(B)	25.05(B)	21.69
	41-49세	334	8.56	7.60(AB)	14.09(AB)	25.34(AB)	21.92
	50세 이상	137	8.72	7.93(A)	14.61(A)	26.41(A)	22.58
	F값		N.S.	3.67*	N.S.	N.S.	N.S.
주부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374	8.46	7.77	14.23	25.78	21.94
	전문대졸이상	267	8.77	7.15	14.00	25.08	22.07
	T값		-1.92*	3.07**	0.79	1.53	-0.35
주부의 취업여부	전업주부	405	8.76	7.66	14.23	25.57	22.15
	취업주부	236	8.32	7.26	13.96	25.36	21.74
	T값		2.58**	1.91*	0.94	-0.35	1.08
남편의 직업	전문,기술/경영,관리직	233	8.74	7.34(B)	13.78(B)	24.71(B)	21.65(B)
	사무,판매,서비스/자유,상공자영	349	8.52	7.47(B)	14.19(B)	24.64(B)	21.99(B)
	단순노무자,농어업종사자,무직	59	8.46	8.42(A)	15.28(A)	27.72(A)	23.46(A)
	F값		N.S.	4.41**	3.83*	6.72***	3.65*
가계 소득	200만원이하	197	8.58	7.86(A)	14.61(A)	26.46(A)	22.23
	210-300만원	213	8.46	7.48(AB)	14.19(AB)	25.41(AB)	22.01
	310-400만원	104	8.47	7.31(AB)	13.73(AB)	24.81(B)	21.74
	400만원이상	127	8.93	7.18(B)	13.59(B)	25.69(B)	21.84
	F값		N.S.	N.S.	2.56*	3.18*	N.S.
주택유형	단독주택	224	8.50	7.58	14.40	25.92	22.07
	공동주택	417	8.65	7.47	14.04	25.27	21.96
	T값		N.S.	N.S.	N.S.	N.S.	N.S.
주택소유상태	소유	505	8.59	7.51	14.11	25.43	21.88
	기타	136	8.62	7.52	14.21	25.74	22.43
	T값		N.S.	N.S.	N.S.	N.S.	N.S.
주택규모	30평 미만	299	8.53(B)	7.67(A)	14.37	26.10(A)	22.01
	30-40평	201	8.42(B)	7.54(AB)	13.86	24.69(B)	21.88
	41평 이상	141	8.97(A)	7.12(B)	14.01	25.35(AB)	22.15
	F값		3.17*	N.S.	N.S.	3.71*	N.S.

*p<.05 **p<.01 ***p<.001

연령이 많은 주부일수록 전기소비를 절약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건강보호와 물 소비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행동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고졸이하의 주부보다는 전문대졸 이상의 주부가 건강보호행동의 수행 수준이 높은 반면, 물 소비행동에서는 고졸이하의 주부가 물을 절약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역에 따라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건강보호 영역 행동과 물소비 행동에서 모두 높은 수행수준을 보여,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친화적 행동과 물을 절약하는 행동을 더 실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소비자행동 및 구매, 사용, 처분의 하위 행동영역에서 시간자원이 풍부한 전업주부가 더 환경의식적인 소비자행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 박운아·이기춘(199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가계소득은 전기소비와 경제적 보상행동 영역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전기를 절약하는 행동을 더 많이 실행하였으며, 환경관리행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 관련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낮은 가계에서 사용요금에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에너지의 절약과 경제적 보상을 통해 가계지출을 줄이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집단이 고소득집단보다 더 높은 환경의식적 행동수행수준을 보인다고 한 박운아·이기춘(1995)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남편의 직업별로는 환경친화적 행동의 5개 영역 중 건강보호행동을 제외한 물 소비, 전기소비, 경제적 보상, 환경보존행동에서 전문, 기술직/사무, 판매, 서비스직인 집단보다는 단순노무자·농어업종사자·무직인 집단이 더 높은 수준으로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수행하였다. 남편의 직업에 따른 환경친화적 행동수준의 차이는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의 규모는 건강보호행동과 경제적 보상행동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주택의 규모가 작은 가계일수록 두 분야의 환경친화적 행동을 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소비와 관련된 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주택의 규모가 작을수록 물 소비를 절약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밖에 주택유형과 주택소유형태 변인은 환경친화적 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4. 주부들의 환경교육유형에 따른 환경친화적 행동

주부들의 환경친화적 행동이 환경교육관련 경험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교육유형별 교육경험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환경보호캠페인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전기소비영역의 환경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비디오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주부들이 물소비, 전기소비, 환경보존행동에서 우수한 수행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교육 시 환경문제를 다룬 비디오나 CD-ROM과 같은 시청각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부들은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행동을 제외한 모든 환경친화적 행동에서 우수한 행동수행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건강보호행동과 전기소비행동에서 우수하며, 물 소비 행동에서도 물을 절약하고 수자원오염을 줄이는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들이 직접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보상과는 관계없이 환경친화적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환경친화적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참여하고 있는 주부의 비율이 18.3%로 매우 낮으므로 환경보호활동에 주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학교의 수업시간에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표 5〉 환경교육관련 경험에 따른 주부들의 환경친화적 행동의 차이

(N=641)

독립변수	종속변수	N(%)	건강보호 행동	불소비행동	전기소비 행동	경제적보상 행동	환경보전 행동
			평균(DMR)	평균(DMR)	평균(DMR)	평균(DMR)	평균(DMR)
환경보호캠페인 참가 경험	있다	278(43.4)	8.73	7.68	14.48	27.90	22.27
	없다	363(56.6)	8.49	7.38	13.86	25.18	21.79
	T값		-1.45	-1.47	-2.19*	-1.58	-1.31
환경 비디오 시청 경험	있다	338(52.7)	8.62	7.72	14.44	25.78	22.37
	없다	303(47.3)	8.57	7.27	13.79	25.17	21.59
	T값		-0.31	-2.25*	-2.31*	-1.33	-2.13*
환경보호 활동참여경험	있다	117(18.3)	9.05	8.32	15.04	25.87	23.75
	없다	524(81.7)	8.49	7.33	13.93	25.41	21.61
	T값		-2.64**	-3.83***	-3.07**	-0.77	-4.61***
학교환경교육을 받은 경험	있다	418(65.2)	8.52	7.46	14.04	25.34	22.00
	없다	223(34.8)	8.74	7.61	14.30	25.78	21.99
	T값		1.26	0.68	0.89	0.91	-0.04
환경기사에 관심	있다	489(76.3)	8.78	7.75	14.49	24.93	22.39
	없다	152(23.7)	8.01	6.74	12.99	24.10	20.76
	T값		-4.04***	-4.37***	-4.63***	-3.45***	-3.83***

*p<.05 **p<.01 ***p<.001

있다고 응답한 주부들은 65.2%로 많았으나 수업시간에 환경교육을 받지 않은 주부들과 환경친화적 행동수행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일부에서는 오히려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주부들의 환경친화적 행동수준이 높은 경향도 있어 학교교육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방법과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즉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단지 수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얼마나 환경보존의식을 깨우쳐 주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행동지침을 제시해 주었는가를 평가해야 될 것이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뉴스나 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은 76.3%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는데, 관심없는 주부보다 모든 분야의 환경친화적 행동수행수준이 높았다. 이는 주부들의 환경관리행동에 신문이나 TV와 같은 매스컴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경정보와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원절약방법 등을 매스컴을 통해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

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매체 접촉도가 많은 주부들이 재활용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연호·박미석(1997)의 연구나 환경기사에 대한 관심도가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의 수행수준에 영향력을 미쳤던 박운아·이기춘(199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상과 같이 학교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경험이 주부들의 환경친화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결과는 학교 이외에 환경단체나 민간소비자단체를 통한 환경교육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김영순(1997), 차정은(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5. 주부들의 환경친화적 행동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주부들이 환경친화적 행동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하위영역 중 건강보호 영역의 환경친화적 행동에는

〈표 6〉 주부들의 환경친화적 행동수행에 미치는 영향

(N=641)

독립변인	종속변인	건강보호행동		물소비행동		전기소비행동		경제적 보상행동		환경보전행동	
		b	β	b	β	b	β	b	β	b	β
개인적 특성변수	주부 연령	0.001	0.006	0.015	0.052	0.011	0.026	0.007	0.011	0.021	0.038
	교육수준(고졸이하)	0.013	0.010	-0.137	-0.086*	0.007	0.003	-0.040	-0.011	0.015	0.005
	취업여부(비취업)	-0.203	-0.047	0.034	0.007	0.037	0.005	0.169	0.014	0.081	0.008
가족적 특성변수	남편 직업	-0.040	-0.012	0.079	0.019	0.450	0.088**	0.572	0.102**	0.899	0.120***
	가계소득	0.0001	0.010	-0.0001	-0.017	0.0003	0.024	0.0003	0.014	0.0005	0.027
	주택유형(단독주택)	-0.170	-0.039	-0.205	-0.038	-0.550	-0.084**	-0.822	-0.068*	-0.263	-0.027
	주택소유(비소유)	-0.245	-0.048	0.042	0.007	-0.037	-0.0004	-0.003	-0.0002	-0.951	-0.084*
	주택규모	0.002	0.017	-0.009	-0.069	-0.009	-0.044	-0.004	-0.014	0.007	0.027
환경관련 변수	환경태도	0.402	0.446***	0.464	0.458***	0.434	0.486***	0.478	0.450***	0.304	0.393***
	환경지식	0.008	0.009	-0.077	0.068*	-0.015	-0.10	0.189	0.121***	-0.05	-0.025
	자원절약지식	-0.054	-0.027	-0.209	-0.088*	-0.327	-0.107**	-0.215	-0.063	-0.199	-0.044
	편의성	-0.145	-0.083*	-0.217	-0.071*	-0.212	-0.080*	-0.412	-0.140***	-0.519	-0.133***
	정보공유성	0.071	0.041	0.082	0.039	0.188	0.072*	0.228	0.047	0.167	0.043
	환경상품구입용이성	0.213	0.108**	0.098	0.041	-0.048	-0.044	-0.254	-0.047	0.505	0.116***
	재활용용이성	0.165	0.076*	0.106	0.040	0.25	0.069*	0.272	0.075*	0.035	0.007
환경교육 유형변수	캠페인참여(무경험)	0.025	0.006	-0.109	-0.021	-0.026	-0.004	-0.171	-0.024	-0.497	-0.053
	비디오시청(무경험)	-0.250	-0.060	0.275	0.054	0.072	0.012	-0.030	-0.004	0.373	0.040
	환경활동(무경험)	0.268	0.049	0.347	0.053	0.420	0.052	-0.406	-0.044	1.568	0.131***
	환경기사관심(무)	0.138	0.028	0.348	0.058	0.388	0.053	0.015	0.002	0.154	0.014
상수		4.05***		1.97*		4.10***		6.74***		9.33***	
R ²		0.320		0.333		0.365		0.326		0.309	
F값		15.359***		16.317***		18.751***		15.007***		14.603***	

*p<.05 **p<.01 ***p<.001

주부의 환경태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환경상품 구입용이성, 편의성, 재활용 용이성이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주부가 상품을 구매할 때 환경친화적 태도를 가질수록, 주변에서 무공해상품이나 재활용상품을 구입하기 용이할수록, 환경친화적 행동 수행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지역사회에서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을 위한 환경친화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공해상품 및 재활용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시설이 보급되고 취급하는 상품이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 소비 영역의 행동 역시 주부의 환경태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는 자원절약지식, 편의성, 주부의 교육수준, 환경지식이 영향을 주었다. 즉 주부가 물소비와 관련된 환경행동을 수행할 때 환경친화적 태도를 가질수록,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수록, 자원절약을 위한 행동이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환경지식이 많을수록 물 소비 영역의 환경친화적 행동수준이 높았다. 교육수준이 재활용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서정희, 1992; 엄하정, 1993; 최남숙, 1994)의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물 소비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생활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어 물을 절약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을 중시하지 않거나 편의주의적 관리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자원절약지식과 환경지식이 물 소비

영역의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통해 에너지소비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나 성인교육기회를 통해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방법을 교육시키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이 시사된다.

전기소비영역의 환경친화적 행동 역시 주부의 환경태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밖에 가족 특성 중 남편의 직업과 주택유형, 환경관련변인 중 자원절약지식, 편의성, 정보 공유성과 재활용 용이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가 전기소비관련 환경행동을 수행할 때 환경에 대해 친화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인 경우보다는 단순노무자나 농어업종사자인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웃과 환경에 관한 정보를 많이 주고 받을수록,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전기소비와 관련된 환경행동수준이 높았다. 자원절약지식이 전기소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소비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절약과 이를 통한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방법을 어릴 때부터 학교교육을 통해 전달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보공유도가 전기소비관련 환경친화적 행동수준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전기사용과 절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전기사용요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전기소비에 관한 정보수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웃과 동료의 영향이 환경보전행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Vining 등(1990)의 연구나 주부들이 이웃이나 친지의 재활용행동을 접하고 주변사람들과 환경보전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재활용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한 이연호·박미석(1997)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단독주택 거주자의 전기소비관련 환경친화적 행동수준이 더 높은 결과는 단독주택에서 유지관리에 전기가 더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 전기를 절약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보상 영역의 행동에는 주부의 환경태도,

편의성, 환경지식, 남편의 직업, 주택 유형, 재활용 용이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주부의 환경태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즉 주부가 환경행동을 수행할 때 환경친화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자원 절약에 대해 편의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수록, 전반적인 환경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인 경우보다 단순노무자나 농어업종사자인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할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다고 생각할수록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환경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지식이 경제적 보상 영역의 환경행동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환경보존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지향적 소비자행동 수준이 높다고 한 오연옥 등(1995)의 연구나 환경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재활용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Johnson & Parrott(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환경보전행동에 또한 주부의 환경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편의성과 환경활동참여, 남편의 직업, 환경상품 구입용이성, 주택소유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행동을 수행할 때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환경보전적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였는데, 엄하정(1993)의 연구에서도 편의주의의 가치가 환경오염감소와 관련된 환경지향적 관리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바 있다. 또 환경보호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수록, 남편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인 경우보다 단순노무자나 농어업종사자일 때, 무공해상품이나 환경보존상품을 구매하기 용이한 상황일수록, 임차가인 경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행동 수행에 환경교육유형 중 환경활동참여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어떤 유형의 환경교육보다도 환경활동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환경친화적 행동의 전 영역에서 환경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상협(2003)의

연구에서 환경의식과 환경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 중 환경의식이 환경친화적 관리행동의 전과정인 구매, 사용, 재활용, 분리배출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책임적 소비자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보다는 소비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태도변수가 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Roberts(1991, 유두련·심미영, 1998에서 재인용)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편의성이 모든 영역의 환경친화적 행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편의성이 재활용행동에 부정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재활용행동의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편의성이 가장 큰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유두련(2002)의 연구결과나 자원을 재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점을 들은 Vining과 Ebreo(199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주부의 환경친화적 행동영역의 수준을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세부영역별로 분석함으로써 환경친화적 행동의 구조를 이해하고 행동수행을 유도하는 요인과 제약이 되는 요인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건강보호 영역, 물 소비 영역, 전기소비 영역, 경제적 보상 영역, 환경보전 영역의 환경친화적 행동을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친화적 태도와 행동의 수준을 검토해 볼 때 전반적으로는 태도 점수에 비해 행동 점수가 낮았다. 그러므로, 환경친화적 태도의 수준은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태도를 행동으로 유인하는 동인이 환경정책이나 환경교육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역별 환경태도와 행동의 수준을 비교할 때 태도 면에서는 건강보호영

역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행동 면에서는 경제적 보상영역의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 또한 환경친화적 행태의 세부 영역에서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적 태도와 이를 실행하는 실천적 행동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환경보전영역의 경우 태도 수준과 행동 수준이 모두 낮게 나타났는데, 환경오염이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개인과 가족의 환경친화적 행동에 의해 가장 잘 개선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홍보하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의 한 유형으로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하도록 한다면 이들에게 유익한 자원봉사활동이 될 것이며 동시에 청소년기부터 환경보전활동을 생활화시키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환경친화적 행동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던 개인적 특성 및 가족특성변수들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은 반면, 환경교육유형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앞으로 환경교육의 방식과 교육매체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즉,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된 환경교육 경험은 모든 영역의 환경친화적 행동 수행에 유의적인 차이를 가져오지 않은 반면 환경문제를 다룬 뉴스나 신문기사에의 관심에 따라서는 모든 하위영역의 환경친화적 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환경보호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경험도 경제적 보상행동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경험자가 더 높은 수행수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환경교육의 수혜자가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선호하는 교육매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환경교육 참여자들의 참여율이나 영향력 면에서 볼 때 대중매체의 교육효과와 대중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환경보호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경험은 여러 영역의 행동에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오나 참여경험자가 가장 적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참여율과 참여를 통한 교육효과를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과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하위 행동영역의 측면에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환경친화적 행동의 하위영역 중 전기소비 영역과 경제적 보상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즉, 가족특성 변인 중 남편의 직업과 주택유형이, 환경변인 중 환경태도와 환경지식 또는 자원절약지식, 편의성, 재활용 용이성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전기소비 영역과 경제적 보상 영역의 환경친화적 행동을 수행했을 때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이나 혜택이 다른 영역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보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환경활동에의 지속적 참여는 환경교육유형변수 중에서 유일하게 영향변수로 나타난 동시에 환경보전행동 영역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환경보전행동이 거시적이고 이타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수행 결과 수행자에게 개인적이고 즉각적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소비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가장 효과적인 동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넷째, 환경친화적 행동에 상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변수유형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행동수행자의 개인적 특성 변수는 교육수준이 물 소비행동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특성 변수 중 주택유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자의 환경친화적 행동이 더 적극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단독주택 거주자의 행동수준이 전기소비영역과 경제적 보상 영역에서 더 높았다. 이는 단독주택이 외부공간의 관리 등으로 인해 전기소비가 더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반상회나 관리사무소와 같이 에너지 사용지침 및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를 통해 홍보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환경변수 중 환경태도와 편의성은 모든 영역의 환경친화적 행동에 각각 정적 영향과 부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었다. 환경태도는 소비자의 환

경친화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내적 동기이며, 편의성은 행동 수행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동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면, 행동수행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가족특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보다는 환경태도, 편의성 등의 동기로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키고, 편의주의적 가치를 지양하는 동기로인을 유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환경교육의 유형과 방식이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는데, 예를 들어 대중매체의 환경교육이 간접 체험에 그치는 한계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의 환경행동의 사례나 직접 체험의 사례 등을 연속물로 제작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환경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시민단체 이외에 사회복지관이나 구민회관 같은 지역사회시설이 주체가 되어 개인과 가족이 환경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설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절약과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지식을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 행동 수행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행동영역을 5가지로 세분화시켜 분석하였고 전반적인 행동 수행수준에 대한 분석은 시도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이는 환경친화적 행동의 범위가 매우 거시적이며, 행동의 동기 및 목적도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분석했을 경우 유의적인 변수의 유형과 영향력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친화적 행동과 태도, 환경교육은 인과적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행동의 영역별 수행수준에 중점을 두어 인과관계의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후속연구의 방향과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면, 첫째 환경친화적 태도와 행동의 격차를 매개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하위 영역별로는 어떤 요인이

작용하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행된다면 환경친화적 행동의 구조를 이해하고 행동 수행을 자극하기 위한 방안 수립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부의 개인적 특성이 환경친화적 행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않았는데, 취업주부가 시간제약으로 인해 환경친화적 행동을 잘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되듯이, 주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외에 시간제약 지각이나 가사노동 부담 등 환경친화적 행동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요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 행동의 하위영역별 수행 수준과 영향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전반적인 환경친화적 행동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으로는 영역별로 환경태도와 행동이 취약한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의 시행여부를 검토하고, 교육적으로는 환경교육의 효과적인 유형과 자료를 선정하며, 소비자 개인에게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지식과 정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희선(1993). 청소년 소비자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곽인숙, 송요숙, 김태련, 김경애(1998). 환경의식과 가정쓰레기의 처리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2), 1-18.
- 김시월(2003). 청소년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6), 105-117.
- 노남숙(1994). 주부의 환경관리지식 인지도와 환경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의, 식, 주, 경영, 구매, 가족관리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노영래, 김시월(2002). 소비자의 환경의식·재활용의식과 재활용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 163-178.
- 노영화, 강성진(1992). 환경보전을 위한 가정소비생활 개선 방안 연구. 한국 소비자보호원.
- 박수경(2003). 청소년의 환경교육경험과 또래집단이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옥(1998). 여고생의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박운아, 이기춘(1995).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199-212.
- 심미영(1999).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책임적 소비자태도와 행동의 일치성 및 영향요인.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엄하정(1993). 환경오염 감소와 관련된 주부의 관리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69-181.
- 유두련, 심미영(1998).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책임적 소비자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23-140.
- 유두련(2002). 재활용행동 집단별 소비자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6), 53-67.
- 이경희(2003). 도시가구의 환경친화적인 태도와 물 소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93-111.
- 이상협(2003). 환경친화적 가정자원관리행동과 환경의식, 환경지식, 환경교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91-102.
- 이승신, 이혜임, 류미현(1993). 환경보존을 위한 소비자 능력. 소비자학 연구, 4(2), 73-96.
- 이연호, 박미석(1997).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주부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행동에 관한 인과적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1), 443-459.
- 차정은(2000). 청소년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의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최남숙(1994). 서울시 주부들의 환경교육과 환경보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한경미(1999). 주부의 가정자원 재활용의식과 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19-132.
- Henion, K. E.(1972). The effect of ecologically relevant

- information on detergent sa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9, 10-14.
- Johnson, M. K. & Parrot, K. R.(1995).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recycling behavior in apartment communities, *Housing and Society*, 22(3), 41-52.
- Schahn J. & Holzer, E.(1990). Studies of individual environmental concern: The role of knowledge, gender and background variables, *Environment and Behavior*, 12, 157-166.
- Vining, J. & Ebreo, A.(1999). What make a recycle?: a comparison of recycler and non-recycler, *Environment and Behavior*, 22(1), 55-73.
- Weigel, R. H. and Weigel(1978). Environmental concern: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Environment and Behavior*, 10(1).
-
- (2003년 7월 31일 접수, 2003년 11월 12일 채택)